

민간경호경비의 발전에 대한 자본주의의 사회환경적 해석*

김창호** 공배완***

< 목 차 >

- I. 서 론
- II.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
- III. 자본주의의 기능과 사회안전
- IV. 자본주의의 사회환경과 민간경호경비의 발달
- V. 결 론

I. 서 론

「자본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자본가치의 사회적 지배와 자본능력의 사회적 통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현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거침없는 성장과 팽창은 결국 인간적인 요소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상실시켰고, 물질중심적 사회구조를 형성함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은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삶의 질 향상과 물질적 풍요가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 물질중심주의 사회를 통한 각종 범죄의 유발은 자본주의의 분명한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인간생활을 주변에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사회체제는 '성장'과 '풍요'라는 긍정적 측면과 '구조적 빈곤'과 '안보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의 극단적인 현상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킴으로 '빈곤'과 '안보'는 자본주의 체제의 숙제로 남아있게 된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주성대 경호비서학과 교수.

** 경기대 경호안전학 교수.

것이다.

20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해 온 자본주의는 결과 중심적인 경제원칙만을 강조하며 생산성 효율의 극대화를 재촉하여 인간의 이기적 행동을 부추겼고 이로 인한 이익최고주의의 극단적 사회상을 형성하여 인간생활의 잠재적 갈등과 탈·불법적 행위를 조장하였다. 특히 대량적 자본의 소유는 국가와 개인이 잘 사는 사회적 지표로서 제시되기도 하여 자본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로서 모델링되었다. 세계적으로는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는 더욱 더 가속화 되었고, 국가와 개인은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주의의 사회적 미덕을 강조하였다. 성장위주의 자본주의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본의 성장과 사회범죄 증가의 등식화는 일반 시민사회에서 그대로 표출되어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생활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안전시스템의 제도화 필요성 등이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성장지배에서 벗어나 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9.11. 테러」도 극단적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었고, 자본주의로 인한 인류사회의 안전에 대한 대량위협을 신호탄이었다. 9.11 테러 이후 「자본주의 (capitalism)」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장치로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은 고조되었다. 시민안전책임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정부도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되면서 정부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작은 정부를 통한 극단적 자본주의의 활성화와 시장기능의 배타적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규모나 역할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성 위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시장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안전 파행성이다.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정부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은 사회적 불안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의 문제는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고 민간영역에서 안전장치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분야에서의 사회안전관리 기능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민간경호 및 경비의 발전배경을 자본주의의 사회적 환경에서 조명해봄으로써 양자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학문적 정립을 도모하며,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민간경호경비 분야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성을 두고 있다. 민간분야에서의 사회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초보적 단계인 한국에서 관련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경험의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의 위협으로부터 일상생활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분야에서의 사회안전을 담당하게 될 민간경호 및 경비의 발전가능성은 무한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현실적 이해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연구를 통한 민간분야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학문적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본 주제에 대한 연구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접근·분석하여 자본주의의 사회변화과정을 사회안전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경험론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통계적 자료에 의한 정확한 오차범위를 요구하는 실험적인 논문의 성격보다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사회변화의 관찰을 사실적 직시를 통해 분석하는 서술적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의 분석에 대한 주관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정 분석도구의 사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II.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

1. 자본주의의 생성과 사회의 발달

「자본주의(capitalism)」는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생성과 연관을 갖고, 경제적 내용의 자본주의는 계량적 사회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정치적 의미로서는 '평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므로 자본주의의 생성이 가능해 졌

고, 또한 자본이 사회적 동인(動因)으로 역할하고 있는 자본중심주의는 개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물질적인 사회발전을 동반하였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자유'와 '불평등'을 동시 동반하면서 사회발전을 주도하여 왔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본질적 경향은 사회환경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탄생은 절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절대권력에 의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억압당하고 인간의 창조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자유주의는 등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 자유주의는 극히 인간의 '자연권' 주장에 그 의미를 국한하고 있었지만, 19세기 이후 자유주의의 의미는 개인의 창조적 사회활동으로 자유의 미가 확대 해석되어 상업과 무역업의 번성을 가져왔고 또한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본질은 사회구조의 정형화를 부정하면서 개인의 노력과 탐구를 사회미덕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창조적 사회활동이 자본의 가치로 연결되면서 자유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제도적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중산계급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모두 결합될 수 있는 경제원리로 작동하면서 자본적 사회계층을 리드하게 되었다.

결국 정치적 자유주의가 개인의 창조적 사회활동을 통한 자유방임적 자유시장을 형성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체제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¹⁾. 이러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의 기준을 자본가치의 사회적 역할에 두고 있다. 따라서 계량적 자본의 크기와 소유는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간이 잘 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자유 경쟁적이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 간주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더 자유롭고 더 창조적인 사회체제를 요구하게 되어 자본주의체제는 사회적으로 더욱 발

1)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특징은: 사유재산의 소유, 재산축적에 대한 법적 제한의 철폐, 자유시장체제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최대 이윤동기 추구 등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체제는 인간의 자유로운 자본축적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창조적 사회활동을 통한 무한한 사유재산의 소유를 허용하며 수요-공급의 원리로 작용하는 자유시장체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Cf., Michel Beaud, *Histoire du Capitalisme*, (Paris, Economie, 1987), pp.304-337).

전을 하게 된 것이다²⁾.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민주적' 측면을 자유에서 찾고 있다. 자본주의자들에게 '자유'는 사유재산의 소유와 활용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이용할 권리는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발전의 인과관계는 사유재산의 축적과 활용이 가능한 자유주의의 제도적 장치에 기인하고 있어 양자의 동반적 발전관계는 필수적 사회현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자본의 활용을 통한 자본의 광범위한 사회적 순환은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고용증가와 소득증대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전반적인 사회발전³⁾이 이룩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의 이론으로서는 리스트(Friedrich List)의 경제사관 및 발전단계설, 마르크스(Marx)의 변증법적 발전단계설, 스펜서(Herbert Spencer)의 능력분위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설,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경제체제에 의한 경제발전설 등 많은 이론들이 있으나 이들의 공통점은 자본의 축적 또는 분배를 통한 사회발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은 경제발전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동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2.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

1) 정치적 특성

- 2) 자본주의는 합리적 조직과 경영, 산업가들의 창의적인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통한 부(富의) 추구 등의 프로테스탄티즘적 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창조적 사회생활을 통한 부의 추구를 사회적 미덕으로 간주하여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더욱 활성화 시켰다(이종수 역, 막스베버의 학문과 사상(서울, 한길사, 1988), pp.274-294).
- 3) 본 논문에서 말하는 사회발전이라 함은 가시적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를 말한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는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기획경제체제보다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된다고 봄으로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발전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의 풍요가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생산성의 증대 방법을 통한 자본주의체제를 강조하였고, 이는 역사적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Cf., Marcel Rudloff, *Economie Internationale*, (Paris, Cujas, 1982), pp.48-49).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특성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인간생활의 제한적인 요소를 극소화하고 자율적 개인생활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다수의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적 사회발전을 이룩한다. 이에 대해 레비 스트로스(Lévi-Strauss)는 "개인주의는 개인의 능력발전과 합리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⁴⁾라고 하여 민주주의의 사회적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가치로 시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정부와 제도의 구성도 결국 개인의 합리적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민주주의 운영의 도구로 역할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생이 정치적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자본주의로 인한 정치체제의 변화도 발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특성은 자유와 평등의식의 심화를 통한 대중의 조직적인 사회참여와 국가권력의 확대이다. 정치적 의미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에 귀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성의 기본가치이면서 선제조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관을 말한다. 이는 특정개인 또는 특정계급에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실천이성의 보편적 도덕성으로서 자기 통제능력을 갖추고 타인으로부터 강제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자기가 자기 의사를 지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상태와 또한 '외부로부터의 지배나 강제가 없는 상태'⁵⁾를 진정한 자유라고 자유에 대한 개념설명을 하고 있다⁶⁾. 진정한 자유는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실현되고 또한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4) Cf., Lévi- Strauss, *Mythologique: l'homme nu*, (Plon, Paris, 1971), p.614.

5) 외부로부터의 강제성이란 모든 유형의 사회적 속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위적인 물리력과 극단적이고 무제한적인 외부에 의한 간섭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사회적 규범의 규제는 당연히 지켜야 할 '질서' 이지 개인의 자유침해의 문제는 아니다. 집단의 관습이나 전통 또는 종교교리에 따른 개인의 구속, 그리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나 속박 또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임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 등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구속 혹은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없다.

6) Karl Marx, *L'Idéologie Allemande: Oeuvre Philosophiques*, (Ed. A. Costes, Paris, 1937), p.154 ; pp.157-158.

동반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마찰은 자유의 집중 또는 편중현상이 발생하면서 타인의 자유가 보편적 자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보유정도에 따른 개인의 자유영역이 설정되는 사회적 특성에서 대체로 특정개인 또는 특정계급에 의한 자본의 집중현상에 의해 자유의 보편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특성으로는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은 수평적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의 문제는 「차별성」에서 발생한다. 즉, 사회적 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동일성'의 강조에서 평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불안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평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신분제도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성과 자본의 소유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제한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격적 평등'에 대한 차별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는 것이다. 「인격(人格)」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이면서 자연권이다. 따라서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현실 사회는 사실 그렇지 않다. 정치적 의미의 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참여는 자연권 회복을 위한 소외계층의 집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의 확대문제는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내적 정부의 통치능력과 대외적 국가의 외교능력을 국가권력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국가권력은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산-사회주의에서의 국가권력이 '물리력'에 기초하여 생성된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량적 자본의 크기에 의해 국가권력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체제와 국가권력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특성으로서 자본공급 또는 순환조절을 통한 정부의 물리적 권력행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

의 공급 또는 순환과정에서 합리적 절차와 합목적성이 결여될 때 특혜시비와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조장됨으로 사회적인 마찰이 발생되곤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특성은 시민의 정치적 행위와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자본독점 내지는 편중현상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돈」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에 의한 정치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중심적 사회체제가 정치적 폐단으로 나타남으로 일반시민의 직·간접적 피해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될수록 확대되고 있다.

2) 경제적 특성

「경제」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이며 자본주의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지표는 경제적인 수치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의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다른 어느 경제체제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며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이는 자본주의체제 발전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밀턴(Milton)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 또는 단체나 기관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경제조직을 통한 정부의 간섭을 견제하며 정치권력과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성은 자본의 독점과 지배이다. 자본의 독점을 통한 사회지배 문제는 산업주의 성장시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상업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를 거치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19세기 이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면

7)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라 함은 사회민주적 성격의 제도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원리에 근거한 시장자본주의를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로서 기업조직과 지배구조, 금융체제, 노동체제, 국가의 역할, 대외관계 등 국민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시장원리를 중심에 둔 사회구조 및 체제를 말한다 ; Cf., Michel Beaud, *Histoire du Capitalisme* (Paris, Economica, 1981), pp.344-360.

8) Cf.,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p.8-10.

서 독점자본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정상적인 자유경쟁을 부정하고 특정 기업이 자본의 독과점을 통한 시장의 독점현상이다⁹⁾.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은 소수 독점자에 의하여 정치, 경제의 지배현상이 발생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며 소수계급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1>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구 분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특 징	자본중심적 자본주의 자본우월주의 강조 극단적 빈부격차	복지자본주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 빈부격차 최소화
공공정책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상호경쟁 다원주의적 정치과정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 합주의
경제정책	시장경쟁원리 경제능률주의	분배정의 실현 완전고용정책
주요국가	미국 일본 한국 등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공 통 점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 채택	

특정계층 또는 소수집단에 의한 자본의 지나친 독점현상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정책과정의 지나친 간섭을 유발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성은 군사력이나 정치력 등과 함께 경제력으로 지표화 되어 대외적인 국력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국력의 기초로서 경제력을

9) 미국의 모간(J. P. Morgan), 힐(James J. Hill), 록펠러(John D. Rockefeller) 등은 대표적인 초기독점자본주의의 기업가들로서 미국경제를 지배하였고, 미국의 정부까지 돈으로 지배를 함으로 자본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독점현상은 체제 내에서의 경쟁상대를 급격히 제한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본주의의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원칙 없는 사회질서를 만들어 낸다. 무엇이든 돈으로 자극하려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표준으로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해방이후 한국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창환·조영철,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서울, 당대출판사, 2001), pp.29-106).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국가의 경제규모나 산업능력 및 산업구조, 기술력,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복지 등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참고로 복지국가의 경제정도를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선진국의 삶의 질정도

(단위: 명, 10억 달러, 달러)

국가	구분	인 구	GDP	1인당 GDP	GNI	1인당 GNI
미	국	278,357,000	9,963.1	35,793	9,958.7	35,777
독	일	82,2000,000	1,873.1	22,782	2,095.8	25,504
영	국	58,830,000	1,413.9	24,034	1,458.8	24,697
스	웨 덴	8,910,000	227.3	25,511	224.5	25,196
스	위 스	7,386,000	241.2	32,656	281.9	38,625
핀	란 드	5,176,000	121.7	23,508	126.9	24,572
노르웨이		4,465,000	159.4	35,700	157.1	35,195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1.

경제력은 국가의 외교력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국력증강정책을 지원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대내·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그러나 지나친 자본중심적 경제체제는 자본 독점을 통한 비정상적인 지배체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유발시킴으로 시민의 안위를 위협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점체제에 의한 시장의 지배와 통제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독점의 비정상적인 지배와 운영은 사회계층간의 폭력현상을 유발하고 자본독점을 위한 과다경쟁을 발생시켜 '한탕주의'나 노력이상의 대가를 바라는 사회심리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활성화는 기업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개혁과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은 기업가가 직면한 경제환경을 정

면으로 극복하면서 경제환경을 바꾸려는 행위로서 현실타과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불확실성과 사회적 위험부담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혁신과 개혁은 점차 시장관계에서 형성되기보다는 기업 내부의 조직적 학습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며, 사회적 관심은 부차적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혁신과정은 기업자체의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려는 의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는 부차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의존과 기업의 사회적 지배는 자본에 의한 비인간성, 자본축적체제의 비합리성, 사회발전과정의 불확실성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자본 중심주의의 심화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것이다.

따라서 자본소유의 크기에 따른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결정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성은 '인본주의(人本主義)'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위배될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자극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3) 사회적 특성

자본주의 체제의 제도적인 사회적 특성은 '사유재산의 소유'와 '사적활동의 자유'이다. 사유재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산주의¹⁰⁾나 사유재산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사회주의¹¹⁾와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는 사유재산의 무제한 소유를 선포하여 개인의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시킴으로 사회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외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capital)'이 생산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표출되는 자본의 '사회가치화' 현상은 자본주의의 내면적인 사회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에 의한 사회유지와 발전이 있으며, 국가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자본주의의 재생산 기능역할을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¹²⁾ 자본주의 체계가 존속, 유지, 성장 또는 재생산

10) 공산주의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Lilly Marcou, *Le Mouvement Communiste International depuis 1945*, (Paris, Puf, 1980), 126p. 참조.

11) 사회주의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Jan Waclav Makhaïski, *Le Socialisme des Intellectuels*, (Paris, Inédit Politique, 1979), 256p. 참조.

을 위해서는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accumulation)'과 자본축적과정의 '정당성(legitimation)'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의 축적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이며 사회발전의 동인이 되고, 자본축적과정의 정당성 확보는 사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축적'과 '정당성'은 자본주의의 기능과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 선제 조건이고 국가발전의 기본전제가 된다. 특히 과학기술을 포함한 전반적 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의 계량적 발전이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들의 주장은 자본에 의한 국가의 구조적 종속관계나 사회적 피해는 간과하고 있으며, 평등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무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적 피해는 평등보장, 빈부격차, 시민복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평등에 대한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격에 대한 평등'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인격의 평등이 수평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차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이다. 빈부의 격차문제¹³⁾도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최대의 모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의 소유정도에 따른 극단적인 불균형과 삶의 차별성은 사회계층을 양분화 하여 사회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최고의 갑부가 존재하는 반면 절대적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12) Cf., Jean-Yves, *La Pensée de Karl Marx* ; (Paris : Points Politique, 1970), pp.167-191

13) 빈부격차문제는 사회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사회부조리와 사회범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나 정치권력자들은 기업범죄 등 보이지 않는 사회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 저소득층과 빈민층은 못가진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으로 또 다른 양상의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 자체는 모든 종류의 범죄양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Cf., Eliance Mossé, *Les Riches et les Pauvres*, (Paris: Points Economie, 1980), 234p.).

형성된 국가이기도 하다¹⁴⁾.

자본주의에 의한 빈부격차문제는 사회범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제층별 사회범죄를 유발시킨다. 다시 말해,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사회규범과 제도에 대한 불만이 여러 종류의 범죄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갈등이론’으로 사회범죄를 설명한 튜크(Turk)¹⁵⁾는 “범죄란 생리적, 심리적, 또는 행동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갖는 자가 지각하고, 평가하고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퀴네(Quinney)¹⁶⁾는 “범죄란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갖는 계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범죄의 원인이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빈부격차가 사회적으로 동반되는 필수사항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부양정책의 개념으로서 빈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이 가진 자의 부(富)를 국가에서 제공받아 가난한 계층에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는 창의적 사적활동의 보장을 통한 정당한 방법의 부(富)의 획득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세력의 논리로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능과 존속을 위해서는 ‘축적’과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나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축적이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 빈곤층에 재분배된다고 한다면 개인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¹⁷⁾. 자본주의는 사회발전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효과적 일수는 있지만 사회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동반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사회적 폐단으로서, 자본주의는 사회발전의 동인(動因)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부조리와 갈등을 동시에 양산하므

14) Cf., Eliance Mossé, *Les Riches et les Pauvres* (Paris: Points Economie, 1980), pp.84-105

15) Cf., A. Turk, *Criminality and the Legal Order* (Chicago: Rand McNally, 1969), 266p.

16) Cf., R. Quinney, *The Social Reality of Crime* (New-York: Little Brown, 1970). 560p.

17) Cf., Raymond Aron,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Paris: Almann-Lévy, 1984), pp.271-281.

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자본주의와 사회환경의 변화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특수성은 '생산기구'의 성립에 있다. 생산기구의 사회적 기능은 유평아적 사회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근대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생산기구의 원활한 사회적 역할은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선행조건으로 하면서 자본주의를 제도적으로 발달시켜왔다¹⁸⁾. 이에 「국가」 기관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요한 제 조건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본주의를 존속·발전시켜왔다. 이로 인해, 자본에 대해 국가의 구조적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시민사회는 경쟁적 대립관계로 구조화되어 자본 중심적 사회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본 지배적 사회계층이 조직화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자본주의의 기능에 필요한 '축적'과 '정당화'의 제도적 수단을 제공하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통한 사회발전을 유도하였다.

자본주의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로서는 종교·도덕적 가치관 중심의 유심론적 체제에서 물질·기능주의 중심의 유물론적 가치관 체제의 형성이다. 유물론적 중심사회에서는 사회의 하부구조에 의해 상부구조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요인은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 생성된 사회적 형태들을 결정하는 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조건이 제도와 의식을 결정하는 유물론적 사회의 특성이다. 따라서 물질중심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조건과 체제가 인간의 의식구조와 정치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경제에 대한 사회체제의 구조적 종속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도덕

18) 마르크스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체제가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조건들은 한번 작동이 되면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풀이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질서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관례와 전통을 통해 기존의 제한들이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도 자본지배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기존질서를 토대로 부단히 재생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질서를 이루어 사회규정은 사회체제와의 유착관계 속에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발전 논리이다(Cf., Michel Beaud, *Histoire du Capitalisme de 1500 à nos Jours* (Paris: Points Ecomonie, 1985), pp.155-165).

적 인간의 요소를 탈도덕화 시키고, 규범적 사회질서를 탈규범화 시킴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자본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른 사회활동의 정당성은 '사회범죄'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도 자본주의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이다. 이는 자본주의 자체가 사회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내재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미필적 고의 또는 우발적·고의적 사회범죄가 사회적인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통제의 와해 즉, 소득, 지위, 권력 등의 불평등에 대한 일탈의 반응으로서 사회계층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탄력성 속에서 발생하는 제도화 된 갈등이라면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변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저(Coser)는, "갈등 없는 사회는 경화되고 지체된다. 제도화 된 갈등은 경쟁적 주장의 직접적인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사회체제는 불만의 원천을 제거하여 자신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그 체제가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은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고 통일을 재확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고, 이 체제는 관용과 갈등의 제도화를 중요한 안정화 매커니즘으로 사용한다"¹⁹⁾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제도화 된 사회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체제의 불만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출되는 시민의 분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폭력과 대립을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파슨스(Parsons)는, "갈등은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탈행위로서 파괴를 통한 변혁을 갈구하는 행위이다"²⁰⁾라고 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균형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일리오트(Elliot)는 청소년의 범죄연구 결과에서 사회하층 계급의 청소년들이 중간계층보다 더 공격적이고 과격한 폭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산범죄도 2배가 더 많다고 했다²¹⁾. 또한 월터스(Walters)²²⁾는 빈곤과 범죄는

19) L.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6), pp.153-155.

20) T. Parsons,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New-York: Free Press, 1954), pp.329-333.

21) D.S. Elliot & S.S. Ageton, *Reconciling race and Class Differences in Self-Reported and Official Estimates of Delinquency* (N-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45, 1980), pp.95-110.

22) Cf., G.D. Walters, *Foundations of Criminal Behavi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Vol.*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고, 퀴네(Quinney)²³⁾는 사회적인 불공정이 범죄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범죄의 양산은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환경에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타협과 양보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사회환경을 형성하여 범죄발생의 최적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통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물질적인 사회발전과 조직화 된 범죄의 발전을 동시에 가져온다. 사회환경의 변화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사람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III. 자본주의의 기능과 사회안전

1. 자본주의 구조의 사회적 위협

1) 자본주의와 사회계층구조의 심화

사회계층의 형성은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면서 주로 정치적 권력관계의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계층이 일반적 사회계급의 의미로 해석되어 '갈등'이나 '투쟁'관계로 표출된 것은 근대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부터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계급투쟁의 불가피 설을 주장한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한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²⁴⁾, 계급투쟁은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모순이 계급투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 내 계급을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의 두 계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다른 많은 소규모의 계급들이 사

1, (New-York: Praeger, 1992).

23) Cf., R. Quinney, *Structural Characteristics, Population Areas and Crime Rat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1992), pp.42-52.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소멸을 주장하고 그 과정은 계급투쟁을 통한 인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사회발전 단계의 한 과정일 뿐이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공산사회주의라고 주장하여 공산주의의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Jean-Yves Calvez, *La Pensée de Karl Marx* (Paris: Pointe Politique, 1970), p.375 ; Michel Beaud, *Histoire du Capitalisme de 1500 à nos jours* (Paris: Points Economie, 1987), 374p. 참조).

회적으로 존재하나 이들은 계층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의 보유를 통해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부르조아 계급의 경우 생산관계에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득을 독점하고 있고, 프롤레타리 계급의 경우는 생산관계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보상에 대한 투쟁과 생산수단의 지배를 차지하기 위한 두 계급사이의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투쟁이 혁명을 동반하여 사회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막스베버²⁵⁾의 경우, 사회적인 계층을 '계급' 과 '신분' 그리고 '파당(派黨)'으로 나누어 사회계층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세 계층은 각각 사회적인 '차원'을 정립하고 경험적 수준에서 각각은 서로 인과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갈등과 발전을 계속한다고 한다. '계급' 성립의 전제조건은 '화폐경제체제'와 '시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체제를 통해 효용(utilities)통제적 경제행위가 발생되어 계급과 신분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막스베버는 사회계층의 심화와 갈등은 계급과 신분의 형성에서 비롯되고, 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계층 간의 갈등은 러시아나 중국처럼 국가체제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사회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여 계층 간의 사회적 구조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자본주의를 통한 사회계층구조의 심화는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자본주의의 심화정도에 따라 사회계층구조의 심화도 비례되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수계층에 의한 자본의 독점현상은 자본활용의 독단성을 초래하여 일상근로자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형성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사회계층을 심화시킨다. 또한 이는 자본중심적인 사회권력구조를 탄생시키기도 하여 개인의 능동적 자유를 구속·억압하고 비정상적 과정의 자본축적을 묵시적으로 유도하여 대량적 사회비리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운영과정에서 비롯되는

25) 막스베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Edward A. Shils & Max Rheinstein, *Max Weber on Law in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302p. 참조).

자본구조의 폐단과 자본기능의 왜곡은 사회계층화를 심화시키는 필연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자본주의와 사회갈등의 심화

사회갈등의 문제는 사회계층구조의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양태의 사회내분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양상은 주로 '평등의 원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평등'과 '계층'의 상호대립성 때문이다.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평등은 정치적 평등,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평등개념의 일반성이 평등원칙에 배치되어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갈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²⁶⁾.

법과 법률적 절차의 주요한 기능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거나 그 결과에 직면할 것이 기대되는 일반적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공정한 행사는 사회의 보편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계층과 권력에 따른 법의 불공정한 행사는 사회의 불만요소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 계층의 이동체계와 관련된 '기회의 평등'은 개인 능력의 적용이 신분체계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능력을 억제하는 인위적인 장벽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신분의 척도로서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자본을 통한 계층 간의 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잠재적 가치로 평가되는 '능력' 과 '재능'에 대한 사회적 배려보다는 도출된 결과에 대한 자본적 가치로 개인의 능력과 재능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사회갈등의 근본문제는 이러한 사회계층구조의 심화와 계급과 신분의 구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계층 간의 반목과 시기, 사회비리, 물리적 폭력 등이 동반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형성을 통한 국가정책에 대한 치열한 로비전도 전개되어 특정집단을 위한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사회행동도 자행되고 있다.

26) Cf., William E. Connolly,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10-44.

사회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은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계급과 신분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계층구조의 지나친 격차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빈곤'문제의 경우 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통한 '격'의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시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²⁷⁾. 또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단체나 기구 등을 통한 사회적 역할도 어느 정도 빈부에 대한 격차와 구조적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관별 광범위한 노력을 통해서도 빈부 문제를 포함한 사회갈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회가치화'의 기준이 '자본'에 있고 자본을 통한 사회계층구조의 심화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이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하는 한 사회갈등 문제도 계속되어 나타나고 사회치안문제가 최종적인 해결방안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시민 개인의 안위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치안 관리의 증대문제와 민간기관에 의한 시민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자본주의와 사회안전의 비례적 발전

'자본주의'와 '사회안전'과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비례적으로 동반발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가 물질적인 풍족을 가져다 주어 사회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물질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안전의 문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한다.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수 계층에 의한 국가권력의 독점과 권력독점을 통한 정치적 독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국민전체의 생활이 억압과 제약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신변이 상

27) 사회빈부의 근본적인 발생문제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등은(Eliane Mossé, *Les Riches et les Pauvres* (Paris: Points Economie, 1980), 242p. 참조).

시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양 체제간의 차이이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선진자본주의보다는 제 3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민안전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안정된 체제보다는 불안정한 체제에서 사회갈등과 마찰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²⁸⁾. 자본주의는 많은 제 3세계 국가에서 거부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더 많은 제 3세계 국가에서는 국가발전의 유일한 방책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자본주의와 사회갈등과의 구조적 연관성은 '부자'와 '가난함' 또는 사회적인 신분차이가 대물림되어 사회적으로 고착화되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에서는 계급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세습적 신분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체제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회인식이 만연된다.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분배구조와 부익부 빈익빈 체제를 근원적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사회인식과 계급상승의 의지에 대한 체념이 근원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갈등의 문제로 토착화 내지는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서구 자유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 발전하여 왔고, 자본주의는 '행복'의 수단으로 자유주의를 더욱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최대다수는 노동자계급이 차지하고, 최대행복은 부르조아계급이 독점함으로써 부(富)의 척도가 인간의 행복을 조건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양 계급의 갈등양상은 토착화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자본주의가 발전·심화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된 계급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사회안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조리, 비리, 개인신변의 위협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체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8) 선진자본주의 체제와 후진자본주의 체제의 차이점은 자본주의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를 골격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배합시킴으로 체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계급차이와 빈부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과 사회적 폭력은 자본논리에 따라서만 체제가 운영되는 후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Cf., Jan Waclav Makhaiski, *Le Socialisme des Intellectuels* (Paris: Points Politique, 1979), 256p. ; Lilly Maecou, *Le Mouvement Communiste* (Paris: Puf, 1980), 127p. ; Nicos Poulantzas, *Fascisme et Dictature* (Paris: Points Politique, 1974), 377p. Jean Carpentier et François Lebrun, *Histoire de l'Europe* (Paris: Points Histoire, 1990), 620p.).

‘화합’보다는 ‘경쟁’을 강조하고 ‘절차’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은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유와 권력이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의 정신이 사회상류계층에 자리잡지 않는 한 계급구조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은 지속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회안전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IV. 자본주의의 사회환경과 민간경호경비의 발달

1. 「자본가치중심사회」에 따른 민간안전기능의 부재

‘자본’이 사회적 가치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자본가치중심사회"로 정의한다면, 자본가치중심사회는 자본이 사회적인 구심적 역할을 하며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본 논고에서는 자본지배를 통한 사회의 긍정적 영향보다는 자본지배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려 한다. 자본지배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양극화 된 계급사회를 통한 시민안전의 위협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사회계층과 계급사회의 형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근원으로 하여 형성된다. 또한 사회계층이 형성될 때에는 계층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이념은 계층의 유형과 계층구조를 결정짓는 필연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의식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논리주의’는 사회적 이념으로서 인간생활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자본가치중심사회를 통한 계급사회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이념은 물질적 가치인 부(富)가 일반적 개념으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계층지표로서는 ‘자본’이 ‘신분’을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에 의한 사회적 위신과 권한, 사회적 가치가 차등적으로 계층 간에 적용·구조화됨으로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 사회불안은 시민의 안전문제로 표면화 되고 이러한 시민의 안전은 그 동안은 공공기관의 치안활동에 의존해 왔으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치안을 담당해 온 경찰력의 뚜렷한 한계성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에 민간차원의 보안 또는 치안활동의 활성화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민간경비에 대한 시민의 의존성도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안전위협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은 강도 강간 살인 등의 단순 강력범죄는 물론 특정대상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특수범죄에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사회체제의 불만세력들에 의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대형참사와 같은 사회적인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시민들이고, 이러한 일반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문제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다. 최근 발생한 시민테러 사건들을 보면 1995년 벨로루시의 지하철내의 무차별 테러로 시민 300여명이 사망했고, 1996년 일본의 지하철 내 사린독가스 살포 사건으로 1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미국의 경우 수시로 총기사건이 발생하여 매년 피해를 보는 시민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방화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대표적 시민테러 사건으로 200여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발생하던 사회적인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특히 시민들이 밀집한 장소가 선정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치안 기능의 한계점과 민간경비활동의 부재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건의 원인도 개인적인 원한이나 보복관계의 차원을 벗어나 개인의 불행과 불만을 사회체제 탓으로 돌리면서 '임펄스 톨러런스(impulse tolerance:충동억제능력)'가 약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급격한 경제변동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체제적 기능의 미비는 사회적인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일반 대형참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민 안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공공기관에만 의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민간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업무의 보충적 관계에서보다는 보완적 관계에서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비와 체계적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할분담의 기능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은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사회안전관리 기능을, 민간분야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안전

위험을 예방하는 시민안전관리 기능의 분업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회안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삶의 질 향상과 민간안보의식의 증대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강력범죄들의 증가와 대형참사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안보에 대한 의식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안전확보의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물질적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가족의 해체현상, 생활수준의 계층화, 노사갈등, 체제불만 등으로 오히려 사회범죄는 증폭되어 나타났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비이성적인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안전불감증과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위기관리능력”의 제도적 부재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범죄구역의 광역화와 범죄대상의 무차별성으로 표출되었으며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를 빈번하게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으로부터 방치되어 어떠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일상의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민간안보의식의 증대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이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사적(私的)소유의 재산과 개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 안전장치의 부재 등으로 더 이상 공공기관에 의존될 수 없다고 하는 현실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개인안보의식의 증대가 민간경비의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본다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원시적 형태의 발전과정에 있는 것이 민간경비의 발전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민간안보의식의 증대욕구에 비해 공급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민간경비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민안전욕구의 민간경비 의존성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역할도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정립과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은 민간

경비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이면서 시민안전관리의 해결방안이며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민간경비분야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서 시작하였으며 주로 경찰의 발전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실 민간경비의 활동이 공적인 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여 활동하므로 오히려 공적 경찰기관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²⁹⁾. 따라서 영국의 치안유지에 대한 기본개념은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책임은 지역주민에게 있다”라는 ‘자위’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³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도시의 빈곤화’와 ‘도시의 범죄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악의 사회적 치안상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이 공경찰력의 강화와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확대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에도 서부개척시대를 지나면서 철도수송과 같은 민간차원의 경호경비업무가 시작되어 1, 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그 이후를 지나면서 오늘날과 같은 민간경호 및 경비업무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야에서의 사회안전관리 기능은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고, 자본주의의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됨으로 공식적인 민간경비의 발달 신호탄이 되었고, 이 후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분야는 대폭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민간경비의 발전연계성을 <표-3>으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경제성장과 범죄발생율, 민간경호경비업체수의 증가

연도별	경제성장율	범죄발생건수	경비업체수	비 고
1976	72-76 (3차 개발계획) 10.1%	326,186	9	용역경비업법 제정

29) 박병석,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1996), p.19.

30) 김종겸, 1960-1990년대 영국경찰동향 (치안연구소 : 치안정책연구, 2000), p.300.

1980	82-86 (5차 개발계획) 9.8%	571,537	13	
1985		615,977	55	
1990	87-91 (6차 개발계획) 10.0%	1,233,383	252	1990년대는 민간 경비의 대폭증대
1993	92-96 (7차 개발계획) 7.5%	1,359,094	499	
1996		1,494,846	931	
1998	신경제계획 3.0%	1,765,887	1308	

자료: 대검찰청 자료실, 한국경비협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자료실

V. 결 론

민간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수요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영역에 대한 수요증대는 사회범죄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민간경호 및 경비의 발전배경에 대해 자본주의의 사회체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므로 민간경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는 합리적 사유재산의 허용, 이윤추구의 원리, 자유경쟁의 원리 등의 기축적인 구조로 운영되어지는 사회체제이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유계급에 의해 법적, 신분적 또는 사회적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다. 사회불만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조직적이고 비이성적인 사회범죄를 대량으로 양산하게 된다.

‘범죄’는 ‘법’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일탈(逸脫)행위를 말한다. 흔히 일탈은 비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쁜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히려 강력범죄나 체제에 대한 조직적 범죄는 극히 정상적인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일탈행위는 누

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행위인 것이다. 사회범죄는 특정 불순분자나 개인적 보복심리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는 과거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어느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범죄이유의 다양한 논리들이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중심의 사회구조에 따른 인간적인 면의 피폐현상이다. '사회해체론'을 주장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켄(Durkheim)은 사회규범이 무너진 상태를 '아노미(Anomie)'로 정의하고 아노미 현상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자본의 창출과 축적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급격한 사회구조를 변형시킴으로 이에 상응해서 인간의 이성이 정립되지 못하고 사회규범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함으로 사회범죄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범죄의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비례적 관계로서 양자는 동시공존을 하고 있다. 자본중심적 사회체제가 존속하는 한 사회범죄도 지속·발전된다고 하는 논리이다. 사회치안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시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민의 치안수요욕구는 민간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범죄의 존속·발전과 더불어 민간경비도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민간기관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나 교육적 체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사회치안과 시민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31) Emile Durkheim, *L'Education Morale* (Paris: Puf, 1963), pp.81-94.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공배완, 민주주의의 사회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고찰, 경호경비연구 (제4호, 2001)
- 공배완, 경호경비원 직무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구관현, 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1997.
- 권건일, 사회교육의 이해 (서울: 양서원) 1996.
-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1.
- 김중겸, 1960-1990년대 영국경찰의 동향, 치안연구정책 (치안연구소, 2000)
- 김용현, 사회교육과 열린 평생학습, 독자와 함께 (서울: 1998).
-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1996.
- 이상원, 방법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1.
- 이윤근, 경비업법, (서울: 도서출판 육서당) 1999.
- 이종수 역, 막스베버의 학문과 사상 (서울: 한길사) 1988.
- 전창환 외,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서울: 당대출판사) 2001.
- 차갑부,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1997
- 홍순이, 비서학개론 (서울: 한울출판사) 1996

<외국문헌>

- Aron Raymond, Paix et Guerre Entre les Narions, Almann-Lévy, 1985
- Beaud Michel, Histoire du Capitalisme, Edition du Seuil: Paris, 1987
- Calvez Jean-Yves, La Pensée du Karl Marx, Pointe Politique: Paris, 1970
- Carpentier Jean, Histoire de l'Europe, Points Histoire: Paris, 1990
- Connolly William E.,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3
- Desmaretz Gérard, Le Manuel du Garde du Corps, Chiron: Paris, 1999

- Durkheim Emile, *L'Education Morale*, PUF: Paris, 1963
-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2
- Gerald Dworkin, *The Theory and Practices of Autonomy*, Cambridge Univ. Press: New York, 1988
- Hebert Waltzer,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Dodd Mead & Com.: New York, 1975
- Lévi-Strauss, *Mythodologie: l'homme nu*, Plon: Paris, 1971
- Makhaiski Jan Waclav, *Le Socialisme des Intellectuels*, Edition du Seuil: Paris, 1979
- Marcou Lilly, *Le Mouvement Communiste International depuis 1945*, Puf: Paris, 1980
- Marx Karl, *L'Idéologie Allemande: Oeuvre Philosophiques*, Ed. A. Costes: Paris, 1937
- Merton R.,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The free Press: New York, 1968
- Mossé Eliance, *Les Riches et les Pauvres*, Points Economie: Paris, 1980
- Parsons T.,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Free Press: New-York, 1954
- Quinney R., *The Social Reality of Crime*, Little Brown: New-York, 1970
- Rejai M., *Contemporaray Theories*, Atherton Press: New York, 1967
- Robert Georges, *Hétérogénéité Culturelle et Communications*, Edition Anthropos: 1978
- Rudloff Marcel, *Economie Internationale*, Cujas: Paris, 1982
- Shils Edward A., *Max Weber on Law in Economy and Society*, Ha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7
- Turk A., *Criminality and Legal Order*, Rand McNally: Chicago, 1969

ABSTRACT

Social Environment Research of Capitalism for the Private Security Development

Kim, Chang-Ho · Gong Bae-Wan

Capitalism is based on a material desire of the human being. the social control of capital value and the management of capital ability reflect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pitalism well. The unconstrained growing and the expansion of capitalism, it finally lost social meaning and an importance of human being element and the safety of the civilian life, began to threaten the security of citizen by forming over the material center structure of society. Improving human life quality and material richness on their life leads positive factor of capitalism whereas is causing several crimes through the society which is being threatened around a human being life for a negative factor of the capitalism. Therefore capitalistic social system has offered both a positive factor 'growing' and 'richness' and that of a negative 'structural poverty' and 'lack of security' and they have been remaining the assignment of capitalism 'poverty' and 'security' by settlement in the society for a extremely phenomenon of both sid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build its study theory and establish its causal relation by illuminating for the social environment of capitalism for a private guard or a development background of the civil security contributing for citizen security, as well as gets the clue of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ivil guard and escort field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Korea because their recognition of the study approach and the social safety for social security control function is still

staying first step and our daily life is annoying from various threat of the society, many studies and the realistic necessity of experience related with social security is being studied. In addition,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ivil guard and defense at the civil field which will be keep the social security has a wide position but its study approach and realistic comprehension is still in insufficient condit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is started to grasp the security of civil field and to grope a development possibility through the research of capitalism